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개정의 필요성’과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 더 고려해야할 점들

박 하 식 삼성고등학교 교장

1. 개정의 필요성에서(국가 사회적 요인, 학습자 요인, 인간상 핵심 역량)

- 학교 교육 후 경제 활동 진입이라는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 최종학교(고교 또는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경제활동) 진입이라는 현실적 과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함. <경제활동 진입 연령, 최종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기간 단축의 필요성>
- 고등학생의 국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의 강조: 보호대상이 아닌 준성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시민의식(준법교육), 경제의식(경제교육, 금융교육) 제고.
- 유아교육,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대학교 교육(경제활동)의 학교 급별 연관성 및 독립성에 관한 구조적 변화의 시도 - 유·초·중학교의 연계성, 고교·대학(경제활동)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함. [고등학교는 대학교나 산업과의 연계성이 중학교와의 연계성보다 높아야 함]
- 교육과정 개정 만능주의에서의 탈피: 기존의 교육과정이 사회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질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요청이 생겼다는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 질관리의 한 측면: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다고 했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학생들이 습득하게 될 지식과 경험 태도의 결과는 비슷해야 함(성취수준의 관리). 교수 학습에 대한 연수와 역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평가의 질을 높여가야 함(단위가 아니라 이수에 필요한 최소 실시간 수의 제시, 교사들의 지도 책임과 평가 권한 확대 - 수능과 관계없이, 수능만이 현재는 질관리의 유일한 장치).

2. 성공적 시행(학습량 적정화, 중학교 교육과정...)

- 학습량 과다의 주요인 수학(영어) 학습량의 적정화와 이를 위한 진단과 대책 마련: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자신의 학교 수업 이후 학습 시간 중 수학과목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에 대한 과학적 진단, 수학과목으로 인하여 형성된 교육산업, 교육종사자들의 실태 조사와 대안 마련.

[수학(영어) 과목으로 인해 형성된 교육산업과 교육종사자 당사자들의 인식변화와 이러한 산업구조와 종사자들의 soft moving을 위한 사회비용 지출 계획의 수립)

- 선행교육방지법 사례의 준용: 국가가 마련한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제한과 관리(학교가 아닌 곳에서, 무자격 강사가 국가 교육과정 내용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 ‘자유 학기’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명확화: ‘자유’라는 용어를 쓸 때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인지 제시해야하고, 수정을 한다면 ‘자유학기제’에서 의도하고 있는 중심적 활동과 관련된 단어를 넣는 것이 필요함.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조어가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들어갈 만큼 적절하게 조어(造語)가 되었나? 운동 또는 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는가?
-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한 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EBS의 역할 개선, 현재 수능을 준비하는 교육방송의 역할에서 실제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체제로의 변화(학교별로 수강하도록 하고 EBS와 신청한 학교가 과목 이수 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방안)
-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조항: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교육적인 필요성보다는 정치 사회적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교육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에 대한 장치가 필요함.